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법령 입안·해석 등 실무교육 진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0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재학생 15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전원이 차질 없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법제처 실무수습의 누적 수료자는 총 1,158명에 달한다.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부의 입법 심사와 법령 해석, 자문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제공했고, 사례 중심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법제처 소속 선배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태안 법제교육원을 방문하여 배움을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제34기 수습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현 수습생은 “법령 조문이 완성되기까지의 정교한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의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라며, “이번 실무수습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말했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선 수습생은 “법제업무의 무게감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익힐 수 있었고, 법령 입안 실무부터 현장학습까지 이어진 알찬 수습 과정은 법률가로서의 가치관을 세우

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론을 넘어 실무 감각을 익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면서, “법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겸비한 법조인으로서 사회문제와 법령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매년 두 차례(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도 제35기 실무수습을 개최하여 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계획이다.

담당 부서	법제처 법제교육과	책임자	과 장	조정필	(041-924-1701)
		담당자	사무관	김채은	(041-924-1704)

